

해제¹

서론

『제세보감』이 출간되었던 1930-40년대는 의사학적으로 전통의학 회귀론이 대두되던 시기였다. 일제의 식민정책이 날로 가혹해져갈 즈음 민족의식이 고양되어 자주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한의계도 부흥의 노력이 있었다. 안으로는 한의학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한의사의 지위향상에 힘썼으며 한의학교육기관의 설치 및 한의학의 존속의 방도를 강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² 김영훈, 장기무가 1935년 『동양의약』에 기고한 글 「한방의학부흥론에 대하여」를 보면 “조선의 현실이 인구에 비해 턱없이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 고급스런 시설을 갖춘 현대식 병원에서 의 진료가 좋은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조선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시급한 조선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방의학이 중요하다.”³ 고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표명했다. 당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집계된 1914년도 한해 공식 등록 의사 수는 5,827명으로, 공표인구 15,621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의원 수는 인구 1만 명당 평균 3.75명 정도의 수준에 불과 했다.⁴ 이런 시기에 궁중에서 활동했던 어의들의 사회활동, 민간에 숨어있던 의가(醫家)들의 의서출판, 학술잡지의 간행, 한의사 모임의 활성화 등으로 한의학의 학술을 많은 발전을 하게 된다. 이 시기 한의계에서 많이 연구되었던 서적 분야는 『동의보감』, 『방약합편』, 『상한론』, 『의학입문』 등이 있으며⁵ 1933년에 출간된 『제세보감』은 『방약합편』의 편제를 모티브로 하여 출간된 실용적인 임상한의서이다. 지금까지 『제세보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2007년 「고의서산책 346호」⁶ 기고 글에 서문과 간략 해제가 실려 있고, 2011년에 「의서의 간행을 중심을 살펴 본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⁷과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⁸에 서적과 인물을 소개하면서 『제세보감』이 중요한 일제강점기 임상서임을 표명하고 있다. 『대동문묘창건시집(大同文廟創建詩集)』⁹에 그의 연보가 상세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문생들이 기록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저자의 삶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세보감』 서문에서 그가 ‘補於醫學界’ 즉, 의학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과 같이 문하에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여러 차례 송덕비에 저자의 이름이 새겨졌으며, 신문기사에 30년간 의료인으로서 빈자를 무료로 치료한 ‘살아있는 부처’¹⁰로 이름이 실릴 만큼 ‘제세(濟世)’에 뜻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제세보감』이 일제강점기와 해방의 시기를 거치면서 3차례 출간이 진행된 것 역시 세간의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되며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하다.

『제세보감』의 출간

『제세보감』은 1933년(제세당약방 출판소)에 처음 출간되었다. 초간본은 현재 1권 1책의 목판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판권지에 소화 8년(1933년) 발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작권 발행인은 문기홍(文基洪)으로, 주소는 경상남도 울산군 울산읍 옥교(玉橋)동 160번지로 적혀있다. 이후 두 번의 출간이 있었는데 행림서원에서 간행한 1966년본(국립중앙도서관 1본, 대구가톨릭대 도서관 2본, 덕성여대 도서관, 동국대 도서관 1본 소장)과 다시 행림서원에서 발행한 1975년본(원광대 도서관 소장 1본)이다. 경희대도서관에 소장된 출판년불명의 『제세보감』 2본은 행림서원 출판인 것으로 보아 1966년이나 1975년 간본일 것으로 생각된다. 형태사항은 초간본(1933년) 70장, 1966년본 62장, 1975년본 63장이고, 크기는 26cm로 거의 동일하다. 초간본과 이후의 간본이 7-8장 차이가 나는 것은 『제세보감』 초간본 말미에 붙어 있는 ‘수험서 및 각종 양식’에서 기안한 것으로 1933년 처음 간행 시에는 첨부하였다가, 1966년, 1975년 출간시에는 광복 이후 제도의 변화로 필요가 없어지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출간한 것으로 보인다.

『제세보감』의 편제와 내용

『제세보감』은 크게 서문부·본문부·부록·수험서 및 각종 양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문부에는 「제세당문선생연구방」, 「경상구군 제세당 수비처급비문」, 「제세당문선생행략」, 「제세보감서」, 「소지(小識)」, 「기사등서(記事謄書)」가 있다. 저자 문기홍에 대한 검증된 사료는 찾기 어려우나 서문부를 통해 그가 의생(醫生)·침술사(鍼術師)·제약사(製藥士)·약종상(藥種商)으로서 삶을 살아왔으며, 제세(濟世)에 뜻을 가진 의료인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본문부는 크게 「수증용약목록」과 「제세보감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세보감갑」의 208개의 방제들이 「수증용약목록」의 54개 조목·613개의 세부증상에 따라 1286건 배치되어 있고 뒤에 통치방이 실려 있다. 『방약합편』의 「활투침선」·「활투처방」편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두 서적은 상당히 다르다. 우선 단을 구성하는 분류방법에서 「제세보감갑」은 「활투처방」의 보익(補益)·화해(和解)·공하(攻下)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분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가독성을 위해 단순 4단 구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제세보감갑」은 방제마다 각각 구성약재·주치(主治)·가감방·제조/복용법·침구법을 제시하고 있다. 증상이나 계절에 따라 가감방을 많이 소개하였는데 사물탕·단삼사물탕·사육탕·육미지황탕·팔물탕·팔진탕·십전대보탕처럼 기본방이 같은 방제인 경우에는 한 방제명 내에 모아서 기재함으로써 기본방과 변방(變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했다. 각 [방제명 : 침구법]을 1대 1로 대입해 놓은 점도 주목할 만한데 증상에 따라 침구법이 소개되어 있는 타 서적과 차별점을 보인다. 부록에는 침구 및 경혈에 도움이 될만한 서적의 일부를 발췌해 두었다. 「찰병요결」·「맥결」·「침구결」은 『찰병요결』·『의문보감』·『침구대성』·『사암도인침법요결』등의 서적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생각되며, 장부본맥이나 혈자리·사암유주·주치요혈 등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수험서 및 각종 양식 앞부분에는 의생·약종상 수험서 「서양약용량(西洋藥用量)」·「서약각종주사침법(西藥各種注射鍼法)」·「약종상시험식」가 실려 있는데, 1910년 공표된 의생규칙을 시작으로 한의학 말살정책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뒷쪽에는 의생·약종상에 관련된 각종 양식이 실려 있는데 의생·약종상 면허에서부터 영업지역 변경까지 일일이 조선총독부에 허가를 받아야 했던 만큼 일제강점기의 의생·약종상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수험서 및 각종 양식은 1933년본에만 첨부되어 있고 해방 이후로는 간행에서 빠졌다.

『제세보감』 방제구성의 특징

『방약합편』과의 비교는 방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제세보감」 208개의 방제명은 『방약합편』의 「활투처방」 467개의 방제 중에서 143개의 방제를 선별하고, 다른 서적에서 나머지 65개의 방제를 추가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 방제들이 「수증용약목록」 1286차례 배치되어 있고, 그 중 591번은 『방약합편』과 동일하게, 575번은 다른 서적의 방제들의 참고하여 제시하고 있다. 비교를 통해 살펴본 『제세보감』의 방제 구성의 특징은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증용약목록」은 『방약합편·활투침선』의 동일 증상-동일 방제에 대한 대체 방제 목록이 있었고, 대체 방제로는 기본방을 많이 활용하였다. 정전가미이진탕·증미이진탕·가미이진탕·이진탕은 모두 이진탕으로, 대승기탕·조위승기탕·도인승기탕·소승기탕은 모두 소승기탕으로 대체해서 썼다. 기본방이 아니더라도 일괄되게 대체된 방제가 보이는데 성향정기산·곽향정기산·불환금정기산은 모두 불환금정기산으로, 인삼패독산·소서패독산은 모두 형방패독산으로 대체하는 등의 경향을 보인다. 둘째, 『방약합편·활투처방』과 일치하는 「제세보감」의 136개 방제는 방제명·효능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약재구성과 용량이 대부분 가감되었다. 「활투처방」의 구성 약재를 동일하게 쓴 경우는 단 23가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감이 있었다. 가(加)한 빈도가 가장 많은 약재는 향부자(15)이고, 감(減)한 빈도가 높은 약재는 적복령(5)이다. 약재의 가감 빈도수는 저자 개인의 임상지식과 약재 활용 경향을 알게 해준다. 여러 한의서의 방제를 참고하였겠지만 서문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과정’을 언급하였듯이 『제세보감』에 상당 부분 저자의 임상 지식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병증별로 추가된 주요 방제가 있었다. 『방약합편』이외의 서적에서 가져온 방제는 65개이며, 「수증용약목록」에는 575차례 추가되어 방제수 대비 많은 활용이 이루어졌다. 「수증용약목록」에 가장 많이 편성된 방제는 설리산(29)이다. 설리산은 이질·설사·산후 봉루·탈항 등의 증상에 추가되었다. 통증 치료에는 오적산을, 기병이나 유

정에는 육미지황탕을, 적체나 창만의 증상에는 만병환을 추가했다. 소산탕의 경우, 전음(前陰)의 제반 증상에 추가가 되어 산증(痙症)의 통치방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특성에서 오는 약재구성의 한계, 병의 형세와 치료방법의 변화가 저자의 용약 경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세보감』은 『방약합편』의 편제 구성을 따랐지만, 저자의 임상 기록이 집약된 새로운 실용 한의학서라고 할 수 있다.

마치며

『제세보감』은 1933년부터 1975년에 이르기까지 근 40년이라는 시간동안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기를 거쳐 출간된 서적으로 같은 시기를 살다간 의료인에게는 임상한 의서였을 것이고,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가정 의학서였을 것이며, 의생 및 약종상 시험을 봐야 했거나 관련 허가를 받아야했던 사람들에게는 참고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세보감』은 저자에 대한 부족한 역사적 사료들,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한의서에 대한 연구의 한계로 인해 그간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한계에도 일제 강점기 출간된 서적과 인물에 대한 연구를 시기적으로 더 늦출 수는 없다. 구한말의 서적을 통사적으로 한꺼번에 훑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빠진 곳을 메우듯 한편의 의서와 당시를 살다간 한 인물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작업이 훗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해제** : 본 해제는 2016.11.30일 발간된 한국 의사학회지 제29권 2호에 게재된 구현희, 「일제강점기 임상한의서 제세보감 연구」, 논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 **1930년-시기였다** : 정지훈, 「한의학술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시대 한 의학의 학술적 경향」, 한국 의사학회지. 2001;17-1:207-215 참조. [↩](#)

3. **"조선의-중요하다"** : (1935.01.01.) "한방의학부흥론에 대하여" 東洋醫藥 제

1호 [↩](#)

4. **1914년도-불과했다** : 신동원. 『조선의약생활사』. 들녘. 2014;785 [↩](#)

5. **이런-있으며** : 김남일. 「의서의 간행을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의사학 15권 제1호. 대한의사학회. 2006;77 [↩](#)

6. **고의서산책346호** : (2007.07.27.) “제세보감 - 頌德碑에 기록된 仁術遍歷” 민족의학신문 623호. 고의서산책 346호 [↩](#)

7. 「**의서의-경향**」: 김남일. 「의서의 간행을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의사학 15권 제1호. 대한의사학회. 2006;77 [↩](#)

8. 『**근현대-실록**』: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 실록』. 들녘. 2011 [↩](#)

9. 『**대동문묘창건시집**』: 문기홍. 『大同文廟創建詩集』. 발행미상. 1937 [↩](#)

10. **살아있는_부처** : (1924.04.08.) “자선 활불(活佛)의 문의생(文醫生)” 每日申報 04면 04단 “경남부산부 부평정 제세당주인 문기홍씨는 원래 유명한 한의로서 30년간에 수천의 인명을 구제하였으되 빈궁한 환자에게는 침구 및 진료를 무료로 시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칭하되 활불이 재세라 하며 그 문인이 제세당의 간판을 계기하고 각자 출의하여 문씨의 위대한 의술과 자비한 덕행을 영세 유전하고자 하는 성심으로 부산부 부평정 또는 동래군 남면 가로에 석비를 세우고 문씨의 공덕을 칭송한다더라” [↩](#)

* 작성자 : 구현희